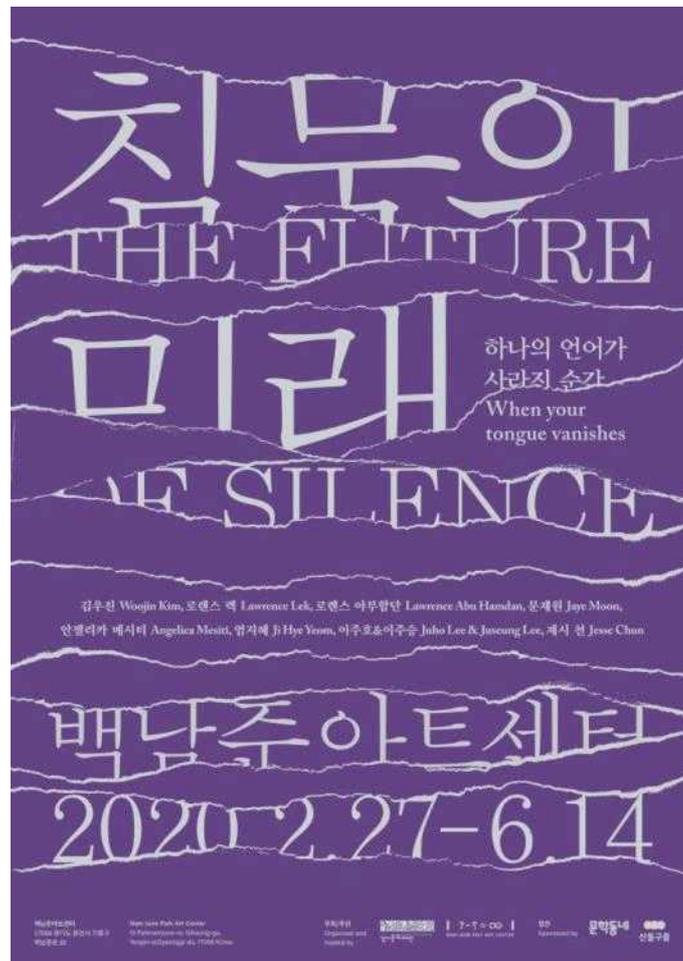


프리뷰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전 '침묵의 미래: 하나의 언어가 사라진 순간' <i>The Future of Silence: When your tongue vanishes</i>		
문의	- 취재문의: 김선영 학예사(t. 031-201-8552 m.010-4665-929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0.01.22	쪽수	총 3매

2020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전 《침묵의 미래: 하나의 언어가 사라진 순간》 *The Future of Silence: When your tongue vanishes*



[전시 포스터]

■ 전시 개요

- 전 시 명 : **침묵의 미래: 하나의 언어가 사라진 순간**
- 전시기간 : 2020. 2. 27. ~ 6. 14. (휴관일 포함109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제 2전시실
- 기 획 자 : 김윤서(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 참여작가 : 김우진, 로렌스 렉, 로렌스 아부 함단, 문재원, 안젤리카 메시티, 엄지혜,
이주호 & 이주승, 제시 천
- 주최 및 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협찬 : 문학동네, 산돌구름

■ 전시 소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은 오는 2월 27일부터 기획전 <침묵의 미래>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소설가 김애란의 동명 소설에서 포착한 질문을 단초로, 말과 글이면서 신체이자 정령, 실체이자 관념, 그리고 체제이자 문화인 언어를 들여다본다. 8명의 참여작가들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사회에서 언어의 약탈과 소멸 현상, 오해와 이해를 거듭하는 관계, 문자의 바깥에서 벌어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탐색한다. 동시에 “중양어”가 낳는 계급과 소외, 생존 도구로서 인권과 직결된 언어의 힘과 실체를 시각예술로 제시한다.

중양을 향한 집착과 소외의 양극단은 한국 뿐 아니라 문명사회 전체에 들이닥친 현상이다. 예로, 영어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직업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영어 광풍은 영어계급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아파트 경로당 입구에 금박을 두른 채 붙어있는 ‘SENIOR CLUB’이라는 문자는 대다수의 실제 이용자에게 읽히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저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실제 삶에서 이 언어가 얼마나 필요한가와 무관해 보인다. 한편, 거리 바닥에서 끊어져있는 점자 블록은 태연하게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큰 목소리로 드러나지 않는다. 전시는 우리 삶에 서서히 스며들어 자리한 문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일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의 실체와 다양성을 시각예술로 환기한다는 점에서 일말의 기능을 갖는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어찌될까.” 하나의 언어가 스스로의 행방을 묻는 소설의 물음에서 시작된 전시는 결국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미래를 향한 인간의 불안이 다른 존재, 다른 종, 다른 언어와 함께 사는 삶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결국 미래에는 침묵만 남지 않을까?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소멸하는 언어의 풍경에서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

* “침묵의 미래”는 소설가 김애란의 2012년 발표 단편소설 제목으로, 저자의 동의를 받아 전시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 주요 전시작 이미지



안젤리카 메시티, <더 컬러 오브 세잉>, 2015
Angelica Mesiti, *The Colour of Saying*, 2015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na Schwartz Gallery



로렌스 아부함단, <분쟁표현>, 2019
Lawrence Abu Hamdan, *Disputed Utterance*, 2019
courtesy of the artist and Sfeir-Semler Gallery Beirut/Hamburg



김우진, <완벽한 합창>, 2019



염지혜, <커런트 레이어즈: 포토샵핑적 삶의 매너>, 2017